11일 '완전체'로 출국하는 AG 축구대표팀

김학범 감독이 요즘 뒤에서 웃는 까닭은…

조별리그 3경기로 줄면서 체력전 숨통
이승우·황희찬 합류…김민재 상태도 굿
"손발 맞추기 수월" 15일 바레인전 기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U-23 대표팀이 7일 파주스타디움에서 인천대와 연습게임을 가졌다. 경기에 앞서 김학범 감독(가운데)이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있다.
파주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출격 전부터 잇따른 악재에 시달렸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걱정거리를 모두 지우고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간다. 비정상적이었던 조별리그 일정이 원래대로 돌아온 가운데, 늦은 합류가 예상된 해외파들이 조기 소집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김학범호의 첫째 난관은 수시로 바뀌는 일정표였다. 당초 한국은 키르기스스탄, 바레인, 말레이시아와 E조를 이루며 무난한 조 편성을 받았지만, 아시아축구연맹(AFC)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행정착오로 누락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E조에 들어오면서 9일 동안 4경기를 치르게 됐다.

그런데 이라크가 최근 국제대회에서 U-16 대표팀 선수들의 나이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됐고, 결국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서 UAE가 이라크의 빈자리로 조를 바꾸게 됐다. 한국은 두 차례의 추가 조 편성 끝에 6일 동안 조별리그 3경기를 소화하는 스케줄을 최종 확정했다.

빡빡한 일정이 내심 걱정이었던 김학범 감독은 한숨을 돌리는 눈치였다. 파주에서 합동훈련을 지휘하고 있는 김 감독은 "경기가 하나 줄어든 점만으로도 다행스럽다. 자칫 이번 대회에서 총 8경기를 치를 뻔했다. 토너먼트 단계가 올라갈수록 부담감이 올 가능성이 높았는데 정상궤도로 들어온 점만으로도 고맙다"고 속내를 밝혔다.

이와 동시에 대표팀은 또 하나의 걱정거리도 지우게 됐다. 팀의 주축 전력인 해외파들의 합류 시기다. 공격진의 핵심 손흥민(26·토트넘)과 황희찬(22·잘츠부르크), 이승우(20·베로나)의 국내 합류가 불발로 가닥이 잡히면서 고민이 컸는데 황희찬과 이승우가 8일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로 조기합류하기로 하면서 해외파와 국내파의 손발 맞추기가 한층 수월해졌다. 이들이 완벽한 몸 상태를 갖고 조별리그 1차전(15일 바레인전)부터 뛸 수 있다는 점 역시 플러스 요인이다.

완전체를 조금 더 일찍 이루게 된 김 감독도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수들이 손발을 조금이라도 맞춰볼 수 있다는 부분은 고무적이다. 특히 해외파 공격수들은 모두 큰 힘이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팀 차원에서도 다행이다"고 흡족해했다.

선수들의 몸 상태 역시 문제가 없다는 전언이다. 한반도에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 걱정이 따랐는데, 훈련시간을 오후 늦은 시간으로 잡으면서 체력 고갈 문제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몸에 별다른 이상이 있는 선수들이 없다. 특히 부상에서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김민재(21·전북 현대)도 아픈 곳이 없다"고 귀띔했다.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에서 합류하는 손흥민을 제외한 나머지 19명이 모두 모이는 김학범호는 10일까지 파주에서 훈련을 소화한 뒤 11일 결전지로 출국한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월드컵대표팀에 격려금 지급
손흥민 등 5000만원씩 수령



손흥민

2018러시아월드컵에 출전한 태극전사들이 격려금을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7일 "러시아월드컵에 참여한 선수 23명에게 1인당 5000만원씩, 총 11억50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월드컵 본선 격려금은 16강 이상 성적을 내면 기여도에 따라 A~D등급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을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조별리그 탈락으로 인해 균등하게 배분됐다.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러시아 여정에 임한 신태용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와 지원스태프 등 18명에게도 격려금이 지급됐다. 이들에게 전달된 금액은 총 5억원으로, 계약조항에 따라 차등 지급됐으나 개인별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대회에 앞서 협회는 통산 10회, 9회 연속 월드컵 본선진출을 견인한 태극전사들에게도 총 24억원에 달하는 월드컵 진출 포상금을 전달한 바 있다. 본선 진출 기여도에 따라 A급으로 분류된 손흥민(26·토트넘 홋스퍼) 등이 8000만원을 지급받은 가운데 B급(6000만원), C급(4000만원), D급(3000만원) 선수들에게도 포상금이 배분됐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아시아국가, 명장 영입 러시…한국은 잠잠

우즈벡, 쿠페르와 3년 계약 사인
사우디는 피치 감독과 계약 연장

한국축구는 2022카타르월드컵을 준비할 국가대표팀 신임 사령탑 선정에 많은 정성을 쏟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감독 선임위원회(위원장 김판곤)는 최종 후보군 3명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접촉을 진행하며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정확한 후보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지난달을 끝으로 이란대표팀과 계약이 만료된 카를로스 케이로스(65·포르투갈) 감독과 2018러시아월드컵에서 멕시코대표팀을 이끈 후안 카를로스 오소리오(57·콜롬비아) 감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쿠페르

그러나 사령탑 교체를 통한 분위기 전환을 꾀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다. 아시아 각국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7일(한국시간) 우즈베키스탄축구협회는 엑토르 쿠페르(63·아르헨티나) 감독의 선임을 공식화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지역예선 결과에 따른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돼 있다.

쿠페르 감독은 상당히 인지도 높은 인물이다. 2015년 이집트 지휘봉을 잡은 그는 28년 만에 '파라오 군단'의 월드컵 본선진출을 일궜다. 비록 2018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에서 3전패로 16강 진출에 실패했으나 마요르카~발렌시아~레알 베티스(이상 스페인) 등 유력 클럽들을 거치며 명성을 쌓았다.

타슈켄트에 입성한 쿠페르 감독이 "우즈베키스탄을 아시아 강호로 만들 것"이라는 취임 일성을 전하자 번번이 한국의 벽에 가로막혀 월드컵 본선에 오르지 못한 우즈베키스탄은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

이라크도 비록 불발되긴 했으나 '검증된 명장' 스벤 예란 에릭손(70·스웨덴) 감독의 영입을 추진하면서 남다른 의지를 보였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쉽게 감독을 내치던 전례를 깨고 후안 안토니오 피치(50·아르헨티나) 감독과 계약을 연장하면서 러시아월드컵에서 보인 가능성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란 역시 기존 케이로스 감독과의 재계약을 우선시하며 불발될 경우를 대비, 유럽 출신 사령탑들과 교감을 나누고 있다.

대표팀이든, 클럽이든 사령탑 선임은 팀 리빌딩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가장 쉬운 선택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결정이다. 철학과 방향이 전부 달라지기 때문이다. 새 옷을 입을 아시아 라이벌들은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개최될 아시안컵을 통해 서로의 경쟁력을 확인한다. 남장현 기자

